

『壬子燕行別曲』의 작자와 창작시기 변증

곽미라*

<차 례>

1. 문제제기
2. 선행 논의의 검토
3. 『임자연행별곡』의 창작시점과 작자 문제
4. 맺음말-19세기 연행가사의 지형도에 관하여

<국문초록>

본고는 陶谷 李宜顯(1669~1745)의 18세기 작품으로 밝혀진 『壬子燕行別曲』을 작자와 창작시기의 문제를 재검증하여 새롭게 소개함으로써, 그 내용과 문학적 특질을 고찰하는데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고, 『임자연행별곡』의 작자를 19세기 石帆 徐念淳(1800~?)으로 확정하려는 의도에서 서술되었다.

『가사소리』 소재 임자연행별곡은 학계에 처음 소개되는 과정에서 작자가 도곡 이의현으로 추정되었으며, 현재 18세기 연행가사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적 가치에 상당한 의미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는 이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초래된 결과로 보인다. 『가사소리』 소재 『임자연행별곡』은 2003년에 이미 『연행록해제1』을 통해 소개된 바 있는 崔遇亨(1805~1878)의 연행별곡과 동일한 작품으로, 그의 문집인 『竹下集』에 별축으로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죽하집』 소재 『임자연행별곡』과 『가사소리』 소재 『임자연행별곡』의 서지사항과 작품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작자와 창작시기를 정확히 고증하였다.

그 결과 우선 작품에서 언급된 임자년은 1852년이며, 이때 최우형이 사은사의 서장관으로 연행을 다녀온 정황과, ‘도선생’이 도곡 이의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사를 의미한다는 점, 작품에서 1811년 흥경래의 난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이의현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그 과정에서 작품이 최우형의 죽하집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과 『죽하집』 서문과 최우형 약보에도 모두 『임자연행별곡』이 최우형의 작품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자연행별곡의 작자가 최우형으로 확정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가사소리』 소재 임자연행별곡의 제목 왼쪽 하단에 ‘서관서렴순’이라는 서명이 발견되면서, 『임자연행별곡』이 1852년 최우형과 함께 연행을 갔던 정사 서염순의 작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작품에 기술되어 있는 ‘歷事四朝’와 ‘致位八座’를 바탕으로 두 인물의 생애와 대조해 본 결과 작품의 내용과 생애가 부합하는 인물은 바로 서염순임을 확인했다. 또한 서염순은 1852년 연행을 떠나기 10년 전인 1842년 황해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는데, 이를 통해 ‘십년전 도선생’이라는 구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임자연행별곡』은 서염순의 작품이라는 것을 비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작

* 동국대학교

품의 작자를 도곡 이의현이라고 추정한 선행 연구와 죽하 최우형의 작품으로 소개한 해제, 그리고 각종 인물정보에서 「임자연행별곡」의 작자는 서염순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임자연행별곡」의 작자를 정정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창작시기의 문제에서 일어난다. 지금까지 소개된 조선 후기 연행가사는 모두 7편으로, 17세기와 19세기 작품의 특징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어 왔다. 그런데 17세기와 19세기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임자연행별곡」이 18세기의 작품이 아닌 19세기의 작품으로 고증됨으로써, 조선 후기에 다양한 형태의 연행가사가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임자연행별곡」은 다소 확일적으로 재단되어 온 17·19세기 연행가사 작품들의 특징이 재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자연행별곡」을 19세기 서염순의 작품으로 밝힌 본고의 논의를 바탕으로 작품의 구체적인 분석은 물론 작품의 특질, 세계관이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17세기 연행가사의 경향과 함께 19세기 연행가사의 면모를 새롭게 규명하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핵심어: 燕行別曲, 임자연행별곡, 徐念淳, 崔遇亨, 李宜顯, 19세기 연행가사, 竹下集, 가사소리

1. 문제제기

연행가사¹⁾는 사신행차의 일원으로 연경을 다녀온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보고·듣고·경험한 것을 가사의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는 사신이 임무를 수행한 뒤에 공적으로 조정에 올린 보고가 아니기에 여정에 따른 견문이 주류를 이루고, 그에 대한 감상과 개인적인 사유가 내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연행의 체험을 기록으로 남긴 이들은 다름 아닌 조선의 지식인들이었다.²⁾ 그들에게 연행은 선진 문물을 경험하고 접수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세계를 인식하는 창구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연행에 참여한 조선 지식인들은 그 체험과 견문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에 사명감을 지니기도 했다.³⁾ 그런데 이러한 연행의 기록은 작자의 철저한 내면의식이 바탕이 되어 있다. 작자가 어떠한 의식으로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대상의 선택뿐 아니라 그에 알맞은 서술 방식이나 어법·어조를 통해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객관적 체험을 그대로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작품에 나타난 작자

1) 燕行歌辭란 조선조에 燕京 使者들이 쓴 가사를 말한다. 사행자 문학은 기행문학에 속하는데 조선조의 기행문학은 그 여행 방식에 따라 사행자문학, 여행자문학, 유배자문학, 망명자문학, 포교자문학, 참전자문학, 표류자문학 등의 하위 장르들이 있다. 즉 사행자문학의 하위 영역에 사행가사가 포함되고, 청나라 사행과 관련된 작품들을 연행가사로 통칭한다. 본고에서는 19세기 연행가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연행가사’라는 용어를 사용함을 밝혀둔다. (임기중, 「연행가사의 연구」, 『한국문학연구』 제10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87, 45~46면 참조)

2) 한국의 사신들이 중국에 다녀 온 회수는 대략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3~14세기에 119회, 15세기에 698회, 16세기에 362회, 17세기에 278회, 18세기에 172회, 19세기에 168회로 이를 합하면 모두 1797회 쯤 된다. (임기중, 「연행록 세계인 인식 담론에서 가치와 역가치」, 『국학연구론총』 제9집, 태민국학연구원, 2012, 13~14면) 조선과 명·청과의 외교는 正朝使聖節使千秋使冬至使로 1년에 네 차례 정기 사행과 謝恩使奏請使進賀使進慰使進香使 등 임시 사행이 있었다. 사절단의 正官은 30여 명에 불과했으나 실제 참여한 인원은 2~300여 명, 많게는 500여 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에는 중국과의 무역을 위해 참여한 숫자도 상당하였지만 중국을 체험하기 위해 참여한 선비의 비중이 상당하였으며 이들이 그 체험의 결과를 시, 일기, 록, 가사 등으로 형상화한 작품 또한 엄청난 숫자이다. (김유경, 「19세기 연행 문학에 나타난 중국 체험의 의미」, 『열상고전연구』 제21집, 열상고전연구학회, 2005, 33~34면)

3) 한영규, 「19세기 한중 문인 교류의 새로운 양상」, 『인문과학』 제45집,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127면 참조.

의 다양한 시각은 작자의 역사의식은 물론, 세계관, 대외인식을 이해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며, 나아가 당대 사대부들의 의식까지도 대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따라서 연행가사를 연구하는데 작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특히 연행가사 연구에서 작자의 문제는 곧 창작시기, 작품이 창작된 국내외적 상황, 문학적 호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고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동안 학계에 소개된 연행가사의 작자와 연대에 관한 논의에는 여러 군데의 오류와 재검토를 요하는 부분들이 있다. 물론 기존의 자료가 가지고 있던 한계로 인해 작자나 창작시기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새로운 자료 혹은 주변 자료들을 통해 작자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예컨대, 『무자서행록』은 연행가사의 대표작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연구자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으나, 작자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임기중은 이 작품을 처음 발굴했을 뿐 아니라,⁴⁾ 상세한 교주를 붙이기도 했으며, 작자를 ‘金芝叟’라고 추정⁵⁾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작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한영규는 연경에서 만났던 청나라 문사 張際亮(1799~1843)의 시집이 현재 남아 있고, 그 속에 만났던 이들의 호와 이름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김지수’가 곧 ‘金老商(1787~?)’이고 芝叟는 그의 호임을 밝혔다. 『무자서행록』의 작자를 김지수에서 김노상으로 정정하면서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작자의 신분 문제였다. 즉 기존의 논의에서는 『무자서행록』의 작자를 ‘白衣寒士’로 보았으나, 김노상은 명문가의 자제이며, ‘백의한사’는 작품에서 쓰인 겸손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뿐 작품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⁶⁾ 이렇게 이 논문은 기존의 논의를 재검토하고 작자를 새롭게 밝힘으로써 『무자서행록』을 좀 더 새롭게 해석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작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작자와 창작시기를 잘못 추정한 경우가 있다. 사실 이 경우가 더 난맥상인데, 전혀 엉뚱한 맥락에서 작품을 분석하게 되는 과오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학계에 새롭게 소개된 『임자연행별곡』⁷⁾이 바로 그 예에 해당한다.

본고는 陶谷 李宜顯(1669~1745)의 18세기 작품으로 밝혀진 『임자연행별곡』을 작자와 창작시기의 문제를 재검증하여 새롭게 소개함으로써, 그 내용과 문학적 특질을 고찰하는데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고, 『임자연행별곡』의 작자를 확정하려는 의도에서 서술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 연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오류를 밝히고, 작품의 서지사향과 내용 분석을 통해 작자를 고증할 것이다. 『임자연행별곡』의 작자를 정정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창작시기의 문제에서 일어난다. 이는 앞으로 전후시기의 연행가사 작품들과 비교 고찰을 하는데도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임자연행별곡』을 연행가사의 지형도에 제대로 위치시키고, 이 작품의 문학적 의미를 재조명 하는 논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선행 논의의 검토

4) 임기중, 「기행문학사의 신기원, 서행록」, 『문예중앙』, 1978 가을호, 1978.10.

5) 임기중, 『연행가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1, 106~116면.

6) 한영규, 앞의 논문, 128~132면 참조.

7) 김윤희의 논문 「사행가사 <임자연행별곡>의 창작 맥락과 문학적 특질」(『고시가연구』 제25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 25면)에서 『가사소리』에 수록된 「연행별곡」을 최초로 소개하며, 17세기에 창작된 유명천의 「연행별곡」과 혼동되는 사향을 피하기 위해 작품의 소재가 되는 연행 시기에 따라 「임자연행별곡」으로 지칭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이미 『연행록해제1』(이지양 해제, 「연행별곡과 연행시」, 임기중 엮음, 『연행록해제1』, 유성문화사, 2003, 829~840면)에서 최우형의 「燕行別曲」이라고 소개된 바 있다. 내용이 동일한 작품의 작자와 창작시기가 서로 다르게 제시된 것이다. 본고의 일차적 목적은 이 작품의 작자를 분명히 밝히는데 있으므로, 작품명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김윤희의 제안을 수렴하여 『가사소리』 소재 「연행별곡」과 『죽하집』 소재 「燕行別曲」을 모두 「임자연행별곡」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연행가사에 대한 논의는 소략한 작품편수에 비해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먼저 연행가사 6편에 대한 풀이와 소개가 이루어졌으며,⁸⁾ 그에 따른 개별 작품과 작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작품들의 자료적 실체와 가치는 대부분 규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연행가사와 연행록의 비교 연구도 이루어졌으며,⁹⁾ 현재 상당히 많은 연구가 축적된 상황이다.¹⁰⁾ 그런 가운데 최근에 발표된 김윤희의 논문¹¹⁾은 개별 작품에 대한 문학적 분석은 물론 거시적인 측면에서 조선후기 연행가사의 흐름과 문학적 특질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개별 작품의 비교는 물론 문학적 맥락에서 연행가사의 성격과 특질을 고찰하는 등 비교의 층위와 범주가 확장된 것이다.

김윤희는 가사문학관 DB 자료실에서 제공하는 『가사소리』¹²⁾에 국문연행가사 「임자연행별곡」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처음으로 자료를 소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작자를 도곡 이의현으로 추정하였으며,¹³⁾ 18세기 전반기 대청 사행가사의 존재를 확인케 함과 동시에 공시적·통시적 측면에서의 연구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지표가 될 작품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논의를 더욱 심화·확장시켜 18세기 초 조선 지식인의 대청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동시에, 이의현의 유연한 문예관과 긍정적 국문관에 기반한 작품임을 강조하고 있다.¹⁴⁾ 또한 17세기 연행가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면서도 19세기 연행가사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前兆的 표상으로서의 의의를 확보하고 있다¹⁵⁾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지금까지 18세기 연행가사 작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연구 성과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임자연행별곡」이 실은 이의현의 작품도, 18세기 작품도 아니라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아마도 이는 이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초래된 결과로 보인다. 『가사소리』 소재 「임자연행별곡」은 2003년에 이미 『연행록해제1』를 통해 崔遇亨(1805~1878)의 『竹下集』에 수록되어 있다고 소개된 임자연행별곡과 동일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하집』 소재 「

- 8) 한강부, 「연행가편고」, 『국문학』 7집, 고려대 국문학과, 1963; 홍재휴, 『북행가연구』, 효성여대 출판부, 1990; 이상보, 『한국고전시가연구』, 태학사, 1984; 이석래, 『기행가사집-연행가』, 신구문화사, 1976; 심재완, 「연행가」, 『한국고전문학집』 10권, 보성문화사, 1978; 임기중, 『연행가사연구』, 『한국문학연구』 제10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87; 임형택, 『옛 노래, 옛 사람들의 내면 풍경』, 소명, 2005 등이 있다.
- 9) 소재영, 「무오연행록과 연행가」, 『고전문학산책』, 1997; 최강현, 『홍순학의 연행유기와 복원록』, 신성출판사, 2005; 정한기, 「〈연행가〉에 나타난 客愁의 특징과 그 의미-〈국역 연행록선집〉에 수록된 연행록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16,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등이 있다.
- 10) 이동찬, 「사행가사 <서행록>을 통해 본 문화충격의 실상과 의미」, 『경산문화연구』 5, 경산대 경산문화연구소, 2000; 공혜정, 「〈연행가〉에 나타난 홍순학의 사대부식과 대외관 연구」, 부경대 석사논문, 2003; 김유경, 「19세기 연행 문학에 나타난 중국 체험의 의미-전·중반기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21집, 열상고전연구회, 2005; 유정선, 「19세기 중국 사행가사에 반영된 기행체험과 이국취향-〈서행록〉과 〈연행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한영규의 「19세기 한글 문인 교류의 새로운 양상-〈부연일기〉 <서행록>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45집,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홍진영, 「19세기 연행가사의 성격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10 등이 있다.
- 11) 김윤희, 「사행가사 <임자연행별곡>의 창작 맥락과 문학적 특질」(『고시가연구』 제25집, 한국고시기문학학회, 2010.2)의 내용은 심화확장 되어 그의 박사논문(「조선후기 사행가사의 세계 인식과 문학적 특질」, 고려대 박사논문, 2010.8)에 한 부분으로 전제되었다. 따라서 본고의 작자 문제에 대한 부분은 「임자연행별곡」을 처음 소개를 하고 있는 학술지 논문의 논의를 인용하며, 박사논문에서 심화된 부분까지도 거론할 것이다. 이하 두 논문의 인용은 각각 ‘학술지 논문’과 ‘박사논문’으로 구별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 12) 『가사소리』는 한국가사문학 국가지식 DB(<http://www.gasa.go.kr>)에서 제공되는 자료로, 책의 크기가 21.5*16.3cm이며, 2004년 12월 1일에 전 소장자인 박순호가 기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13) 김윤희, 앞의 학술지 논문, 73~105면.
- 14) 김윤희, 앞의 박사논문, 6~7면.
- 15) 김윤희, 앞의 박사논문, 280~287면.

임자연행별곡』과 『가사소리』 소재 임자연행별곡』을 비교 고찰함은 물론, 서지사항과 작품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작자와 창작시기를 정확히 고증한 후에 새롭게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임자연행별곡」의 작자를 이의현으로 고증한 선행 연구의 주요 관점을 자세히 살피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중요 부분들을 차례로 검증해 보기로 한다.

- ①작품의 전반부에 있는 ‘임즈 녹월 십일일의 사은스명 맞기시니’라는 구절을 통해 작가가 임자년에 사은사(謝恩使)로 임명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임자년과 관련된 연행록을 살펴본 중 1732년(영조8)에 이의현이 남긴 <임자연행잡지(壬子燕行雜識)>와 <임자연행시(壬子燕行詩)>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의현은 1720년(숙종46)에 이미 연행을 다녀온 바 있으며 이때의 기록이 <경자연행잡지(庚子燕行雜識)>, <경자연행시(庚子燕行詩)>로 남아 있기도 하다.
- ②좀더 작품을 읽어나가던 중 더욱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청석관 니다라셔 금교역마 가라타니/ 십년 전 도선생을 산천도 반기는 듯’이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여기서 ‘도선생’은 바로 도곡 이의현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십년 전이라는 것도 1720년의 연행을 의미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의현이 두 번째 연행을 토대로 <임자연행별곡>을 창작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 ③기존에 연행을 토대로 창작된 사행가사 작품들은 17세기에 3편, 19세기에 3편이었고 18세기의 작품은 일본과 관련된 <일동장유가>가 전부였다. 그러므로 18세기 전반기의 작품에 해당하는 <임자연행별곡>의 발견은 통시적 구도의 보완은 물론 사행가사의 변모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사료적 가치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④이의현은 영조대의 문형(文衡)이었던 만큼 한시나 비평 이론과 관련하여 이미 많은 연구 성과들이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국문으로 창작된 가사 작품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의 문예관 및 연행 체험과 관련하여 주목해 볼 만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¹⁶⁾

먼저 ①의 논점인 ‘임즈 녹월 십일일의 사은스명’에서 말하는 임자년은 1732년, 1792년, 1852년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1732년은 이의현이, 1852년은 최우형이 연행을 다녀온 해이다. 그런데 작품에서 말하는 ‘임즈 녹월 십일일’은 1732년이 아닌, 1852년의 연행이다. 사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1852년(철종3)의 연행은 6월 11일에 명을 받고 출발하여 같은 해 10월 18일에 귀국하여 復命하였으며, 이때의 연행은 謝恩使로서 正使에 徐念淳(1800~?), 副使에 趙忠植(1784~?), 서장관에 최우형이 임명되어 다녀왔다. 반면 이의현이 연행을 간 것은 임자년(1732)이지만 6월이 아닌 4월 3일이며, 이 날 명을 받고 7월 28일에 출발하여, 같은 해 12월 17일에 돌아왔다. 이때 이의현은 謝恩兼陳賀正使였으며, 부사는 趙最壽(1670~1739), 서장관은 韓德厚(1680~?)였다.¹⁷⁾

또한 ②의 논점에서는 이의현이 임자년(1732) 연행을 다녀오기 전인 1720년에 이미 한차례 연행을 다녀온 것을 근거로 ‘도선생’을 도곡 이의현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한문혼용체인 『죽하집』 소재 임자연행별곡』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죽하집』에 부록으로 첨부된 「임자연행별곡」을 살펴보면 “청석관(靑石關) 니다라셔 금교력마(金郊驛馬) 가라타고, 십년전(十年前) 도선생(道先生)을 산천(山川)도 반기난 듯”이라고 漢字가 병기되어 있어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선생’은 ‘道先生’으로 도곡 이의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사의 또 다른 명칭¹⁸⁾으로 전혀 의미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16) 김윤희, 앞의 학술지 논문, 75~77면.

17) 『英祖實錄』, 李宜顯爲謝恩正使, 趙最壽爲副使, 李龜休爲書狀官.(英祖 8年(1732, 壬子) 4月 3日 3번째기사)/ 謝恩正使 李宜顯, 副使趙最壽, 書狀官韓德厚將行辭陛, 上命嚴禁潛商之弊.(英祖 8年 7月 28日 1번째기사)/ 庚午/謝恩兼陳賀正使 李宜顯, 副使趙最壽, 書狀官韓德厚還自清國.(英祖 8年 12月 17日 1번째기사) 이때 처음에는 李龜休를 서장관으로 임명하였으나, 6월 13일에 그를 승진시켜 승지로 삼고, 韓德厚를 그 대임으로 삼았다.(李宜顯, 「壬子燕行雜識」)

18) 觀察使는 조선시대 각 도에 파견되어 지방 통치의 책임을 맡았던 최고의 지방 장관으로 監司·道伯·方伯·外憲·道先生·營門先生 등으로도 불리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과연 1852년 연행을 갔던 최우

무엇보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작품 중간에 1811년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을 회고하는 내용이 보인다는 점이다.

청천강(淸川江) 열는 건너 가산(嘉山) 정주(定州) 다 지니니
신미전장(辛未戰場)이 어제런 듯 ㅎ다만은
후낭생식(休養生息)하여 성화(聖化)가 밋칩도다¹⁹⁾

위에서 말하는 ‘신미전장(辛未戰場)’은 바로 辛未년인 1811년(순조11)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을 말한다. 이것으로 보아 작자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창작 시기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임자연행별곡」은 1732년의 연행을 통해 창작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작품을 18세기의 작품으로 논의하고 있는 선행연구의 논점 ③과 작자를 이의현으로 추정하고 지금까지 국문으로 창작된 이의현의 가사 작품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한 ④의 논점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분석 및 해석의 문제들이 발견되지만, 이는 작자가 정정될 경우 작자와 시대상황을 토대로 새롭게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본고에서 작자를 새롭게 고증하는 단계에서, 1852년 6월 11일 명을 받고 사은사로 연행을 다녀온 정황과, 최우형의 『죽하집』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자연행별곡」의 작자를 최우형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작품을 정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작자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었다. 요컨대, 『가사소리』 소재 「임자연행별곡」에는 제목의 왼쪽 옆 하단에 ‘서관서렴순’이라는 작자의 서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서렴순’은 바로 1852년 최우형과 함께 연행을 갔던 정사 石帆 徐念淳이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는 『가사소리』 소재 「임자연행별곡」을 저본으로 삼아 연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사거나 주변 기록이 없어 작자 미상 작품’으로 전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작자를 추정한 것이다.

이 서명은 「임자연행별곡」의 작자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임자연행별곡」이 최우형의 『죽하집』에 수록되어 있으나, 원전은 전하지 않고 1991년 후손에 의해 첩필로 씌어져 별축으로 첨부된 형태로 남아 있어 그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임자연행별곡」은 서염순의 작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서염순의 문집이 남아 있지 않고 이때의 연행에 관련된 다른 자료가 매우 적어 이를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나, 「임자연행별곡」의 작자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정이기도 하다. 다음 장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몇 가지 자료를 근거로 「임자연행별곡」의 작자를 확정해 보기로 한다.

3. 「임자연행별곡」의 창작시점과 작자 문제

1852년(壬子, 철종3) 정사 서염순, 부사 조충식, 서장관 최우형은 사은사로 6월 11일에 命을 받고 같은 해 10월 18일에 귀국하여 復命하였다.²⁰⁾ 이들의 일정 및 건문한 바에 대해서는 최우형의 『죽하집』에 수록되어 있는 「임자연행별곡」과 연행시 14수, 李義八(1796~?)의 글²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형이 10년 전 관찰사의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19) 이하의 「임자연행별곡」의 원문은 『죽하집』 소재 「임자연행별곡」을 저본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20) 『哲宗實錄』, 召見謝恩使, 【正使徐念淳, 副使趙忠植, 書狀官崔遇亨】辭階也.(哲宗 3年(1852, 壬子) 6月 11日 1번째기사) / 召見回還謝恩使.(哲宗 3年 10月 18日 2번째기사)

21) 少芾 李義八은 1852년 서염순을 따라 연경에 갔는데, 최우형의 연행시 14수 가운데 <和李上舍少芾-義八-見贈韻>이

뿐, 당시 연행사절의 정사 서염순과 부사 조충식의 기록은 남겨져 있는지의 여부조차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시기 연행의 건문이 기록된 「임자연행별곡」과 연행시 14수는 더욱 주목할 만하며, 그 중에서도 「임자연행별곡」은 극히 몇 편에 불과한 국문연행가사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임자연행별곡」이 18세기의 작품이 아니라는 점은 앞의 논의를 통해 분명해졌다. 이제 남은 문제는 「임자연행별곡」이 1852년 함께 연행을 갔던 최우형과 서염순 중 과연 누구의 작품인가 하는 점인데, 이는 현재 소개된 두 이본²²⁾에서 서로 다른 단서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즉, 『가사소리』 소재 「임자연행별곡」에 ‘필사기나 그밖에 작자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선행 연구와, 최우형의 『죽하집』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 『죽하집』 서문과 최우형 약보에도 모두 「임자연행별곡」이 최우형의 작품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자연행별곡」의 작자가 최우형으로 확정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가사소리』 소재 「임자연행별곡」을 확인해 본 결과, 제목 왼쪽 하단에 ‘서관서렴순’이라는 서명이 발견되면서 작자의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가사소리』는 한 권의 필사본 가사모음집으로, 『가사소리』라는 제목이 쓰인 표지 다음에 바로 한 작품이 시작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장이 결락된 것으로 보이며, 그 뒤에 「합강정가」, 「연행별곡」, 「죽엽가」, 「어부사」, 「슈양가」, 「반절푸리」 등 모두 7편의 가사가 실려 있다. 筆寫記나 주변 기록이 없어 편자 미상의 가집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필사 연도 역시 추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각각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합강정가」는 1792년의 작품이고, 「연행별곡」은 1852년 작품이며, 「어부사」는 조선 중기 이현보가 지은 장가 9장의 작품과 유사한 가창가사의 형태이고, 「슈양가」는 18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은 제목미상의 첫 번째 가사와 「죽엽가」, 「반절푸리」를 제외하고도 4편의 가사가 작자와 시기적 층차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작품간에는 내용상의 어떠한 유사성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가사소리』는 당시 향유되던 여러 가사 작품을 모아 필사한 가사 모음집임을 알 수 있다. 『가사소리』에 어떻게 「임자연행별곡」이 필사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바로 ‘서관서렴순’이라는 서명이다.

그렇다면 ‘서관서렴순’은 누구인가? 서염순은 최우형과 함께 갔던 1852년 연행사절의 정사였음을 쉽게 알 수 있거니와, 문제는 ‘서관’이 무엇이며, 이 서명을 근거로 「임자연행별곡」의 작자를 서염순으로 볼 수 있는가에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염순이 작자이며 ‘서관’은 서염순의 자나 호일 가능성이다. 서염순의 자는 敬祖 호는 石帆인데, 현재까지 이 외에 다른 자, 또는 호가 적힌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다음으로 ‘서관’은 ‘서장관’의 ‘장’이 탈락된 것으로, 향유되는 과정에서 함께 연행을 다녀온 서염순과 최우형의 직책이 혼동되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書官’으로 단순히 ‘글을 쓴 사람’이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작자가 잘못 전해져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즉 『가사소리』에서 여러 가사 작품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이회팔이 연경의 松筠庵에서 청나라 문인 王鴻(1806~?) 등과 만나 나눈 필담을 정리한 「小菴遺墨」이 있으며, 최우형의 연행시 <松筠庵與黃樹齋王子梅秦宜亭章仲甘汪子穆共賦>에 보이는 王子梅가 바로 王鴻으로, 子梅는 그의 字이다.

22)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까지 학계에 소개된 「임자연행별곡」의 이본은 모두 2종이다. 하나는 2003년 「연행록해제1」을 통해 소개된 것으로, 최우형의 『죽하집』에 별축으로 실려 있고, 다른 하나는 2010년 김윤희가 소개한 것으로 한 국가사문학 국가지식 DB 자료실에서 제공되는 『가사소리』에 실려 있다. 『가사소리』에 수록된 「연행별곡」은 최우형의 『죽하집』에 별축으로 수록된 「燕行別曲」과 내용이 일치한다. (이하 모두 「임자연행별곡」으로 표기) 그런데 두 작품집 모두 정확한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죽하집』 소재 「임자연행별곡」은 국한문혼용어로, 『가사소리』 소재 「임자연행별곡」은 국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죽하집』 소재 「임자연행별곡」은 총 362구지만, 『가사소리』 소재 「임자연행별곡」은 총 360구로 『죽하집』 소재 「임자연행별곡」에는 있으나 「가사소리」 소재 「임자연행별곡」에는 빠진 구절이 있고, 두 구의 선후 위치가 바뀐 것이 있는데, 이는 필사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생각된다.

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필사자가 1852년 연행의 기록이므로 실제 작품을 지은 작자와 무관하게 당시 정사였던 서염순의 이름을 대표로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비슷한 예로 『가사소리』에 수록된 「어부사」는 龔巖 李賢輔의 작품인데 제목 옆에는 ‘퇴계’라고 기록되어 있다. 퇴계 이황은 「어부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농암 자신의 창작 의욕이 들어가서 거의 自作과 다름이 없다”라는 내용을 어부사 후발에 기록했을 뿐이다. 이렇게 필사자가 해당 작품의 실제 작자를 밝혀 놓기 보다는 그 작품과 관련된 유명한 인물을 제목 옆에 기록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서관서렴순’이라는 서명만 가지고는 정확한 작자를 추정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작품을 정독하는 과정에서 작자로 추정되는 두 인물의 생애와 작품 내용을 비교해 보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어와 벗님네야 이니말씀 드리보소
 청춘(靑春)이 어제러니 백발(白髮)도 덧업도다
 역사(歷事) 사조(四朝)하니 은슈(恩數)도 광절(曠絶)홀손
 무슨 공덕(功德)으로 치위팔좌(致位八座) 했었넌고
 진찰연이(塵刹涓埃)를 일분(一分)도 못갓고여
 오미단(烏美丹) 경결(耿結)불망(不忘)터니
 임자(壬子) 뉴월(六月) 십일일(十一日)에 사은사명(謝恩使命) 맞기시니
 성은(聖恩)은 특간(特揀)이요 공사(公事)는 지중(至中)하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歷事四朝’와 ‘致位八座’라고 기술한 부분이다. 즉 네 임금을 섬겼으며, 판서 반열의 높은 지위에 이른 인물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고찰을 위해 우선 최우형과 서염순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최우형(1805(순조5)~1878(고종15))은 자가 禮卿, 호는 竹下, 본관은 朔寧으로 좌찬성에 증직된 鍾問의 아들이다. 1837년(헌종3) 진사시에 합격, 1850년(철종1)에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의 응교를 역임하고, 이듬해 함경도 암행어사로 나가 선정을 베풀었으므로 山陵都廳에 선정비가 세워졌다. 1852년에 사은사의 서장관으로 연경에 다녀왔으며, 1857년 김해도호부사, 1859년에 승정원 우부승지를 지냈고, 그 이후 양주목사·사헌 부대사헌·한성부판윤을 거쳐, 1866년(고종3) 이후로 이조·형조·공조·예조 판서를 차례로 역임하였다. 1875년 崇祿大夫에 가자되어 판의금부사로 寧豐君에 봉해졌으며, 勳堂을 거쳐 耆老社에 들어갔다. 성균관대 사성으로 재임할 때에는 유생교육에 힘썼고, 홍문관·예문관 제학이 되어서는 모든 문헌을 제찬하고 경서를 진강하였다. 특히 시문에 능하였으며, 저서로 『죽하집』 8권 4책이 있고, 연행을 다녀와서 남긴 국한문혼용의 「연행별곡」이 있으나 따로 전하지 않고 『죽하집』에 별축으로 실려 있다.²³⁾

서염순(1800년(정조 24)~?)의 자는 敬祖 호는 石帆으로, 본관은 大丘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다. 고조는 좌의정 徐命均이고, 증조는 領相 徐志修이며, 조부는 徐有後이다. 부친은 徐恭輔이고, 생부는 嘉善大夫 三道統制使 徐春輔이다. 외조부는 縣監 李集麟과 李應培이고, 처부는 具陽元이다. 형 徐恩淳과 庶弟 徐恪淳·徐忻淳이 있다. 1819년(순조19) 식년시에 생원 3등 11위로 합격하였으며, 1827년(순조27) 증광시에 병과 12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관직은 承旨·楊州牧使·司憲府大司憲·平安道觀察使·吏曹判書 등을 역임하였다. 1832년(순조32) 安州牧의 집 3백 81戶가 불에 탄 일이 일어났을 때, 別兼春秋로서 임금의 명을 받들고 나아가 백성을 위로하는 데 힘썼다. 1834년(순조34) 玉堂에서 嗣位를 연명한 筵子로 청하였다가 왕의 분노를 샀다.

23) 최우형에 대한 인적정보는 그의 시문집인 『죽하집』 앞부분에 첩필로 작성하여 첨부되어 있는 「竹下崔遇亨公家系」, 沈彦模의 「序文」, 「竹下公略譜」, 「跋文」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에도 최우형에 대한 인물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죽하집』 소재 「죽하공약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1837년(헌종3) 도둑이 들어 濬源殿에 있던 어용御容의 綃面이 손상되었는데, 관리를 소홀히 한 죄로 유배되었다가 후에 재임용되었다. 1842년(헌종8) 黃海監司 시절 黃海道暗行御史 沈宜冕의 장계로 인해 벌을 받았다가 다시 임용되었다. 1858년(철종9) 淸北暗行御史 李建弼의 서계로 탄핵을 받았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1910년(융희4) 文肅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²⁴⁾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최우형은 1852년(철종3) 연행 전까지 憲宗, 哲宗의 두 임금을 섬겼다. 반면에 서염순은 純祖, 翼宗, 憲宗, 哲宗의 네 임금을 섬겼으며, 1819년 식년시에 합격하면서 순조, 헌종, 철종 대에 관직을 두루 역임한 인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네 임금을 섬겼다는 말은 서염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서염순은 藥峯 徐潛(1558~1631)의 후손으로 그의 집안은 많은 정승을 배출한 명문가이며, 따라서 연행 경험을 가진 인물들도 많았다. 주목되는 인물로는 徐龍輔(1757~1824)와 徐憲淳(1793~1857)을 들 수 있다. 서용보는 正祖와 貞純王后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인물로 1805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進賀兼謝恩正使가 되어 연행한 바 있으며, 서희순은 憲宗의 신임을 받았던 인물로 역시 1855년 陳慰進香正使로서 연행하였는데, 이 때 徐慶淳(1804~?)이 연행사절을 따라 연경에 다녀온 기록을 남긴 것이 『夢經堂日史』이다. 그 후 徐相鼎(1813~1876)은 1870년 冬至兼謝恩使의 副使로 연행을 다녀와 『燕槎筆記』를 남기기도 했다. 이렇게 이 집안의 풍부한 연행 경험은 서염순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1852년 이들이 연행을 갈 당시의 지위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느냐는 점인데, 작품에서 스스로 ‘致位八座’를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八座’는 후한 이래 六部の 상서와 左右僕射, 또는 오부의 상서와 좌우복야, 그리고 승을 팔좌라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육조의 장관인 판서의 반열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우형은 임자 연행을 가기 2년 전인 1850년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1866년 이후에야 판서의 반열에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서염순은 이미 1842년에 黃海監司, 1851년 吏曹參判, 知義禁府事를 역임하였다. 즉 여기에서도 작품의 내용과 서염순의 생애가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임자연행별곡」의 작자는 최우형이 아닌 서염순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앞장에서 ‘도선생’을 도곡 이의현이라고 해석한 선행의 논의를 바로 잡고 ‘道先生’은 관찰사를 가리킨다고 밝혔는데, 이를 통해 작자가 서염순임이 더욱 분명해진다.

만월대(滿月臺) 저문날의 슬피우년 저 벽국이
일산일수(一山一水)의 객회(客懷)를 도도난 듯
청석관(靑石關) 너다라서 금교력마(金郊驛馬) 가라타고
십년전(十年前) 도선생(道先生)을 산천(山川)도 반기난 듯
형형중형형(行行重行行)의 경성(京城)이 멀어지니
위궐(魏闕)의 달닌 마음 일시(一時)들 니즐소냐

우선 서염순이 1842년(헌종8) 黃海監司 시절 黃海道暗行御史 沈宜冕의 장계로 인해 벌을 받았다는 실록의 기록을 통해,²⁵⁾ 그가 1842년 황해도 관찰사를 역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는

24) 『大丘徐氏世譜』(大丘徐氏世譜編纂委員會, 2003)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純祖實錄』, 『憲宗實錄』, 『哲宗實錄』, 『高宗實錄』 참조. 이 밖에 沙磯 李是遠(1790~1866)이 지은 <祭石帆徐尙書文>(『沙磯集冊六』)의 ‘庚申(1860)正月七日壬申’이라는 구절을 통해, 서염순의 물년을 추정할 수 있다.

25) 『憲宗實錄』, 戊戌/召見黃海道暗行御史沈宜冕于熙政堂. 罪黃海前監司徐念淳, 海州前判官洪鍾浩, 瑞興前府使鄭友容, 白川郡守洪翰周, 新溪前縣令朴醇壽, 康翎縣監李在翊, 黃海前水使吳顯文, 前前水使申從鎬, 黃海前中軍張斗斌等有差, 因御史書啓也. (憲宗 8年(1842, 壬寅) 8月 22日 1번째기사)

1852년 임자 연행을 떠나기 10년 전의 상황이다. 작품에서 말하는 ‘십년전(十年前) 도선생(道先生)을 산천(山川)도 반기난 듯’이라는 구절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작자는 金郊驛에서 말을 갈아탔다고 했는데, 금교역은 황해도 江陰縣에 속해 있다.²⁶⁾ 즉, 개성에서 황해를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기 직전 京城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10년 전 자신이 부임했던 곳에서의 감회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임자연행별곡」의 작자는 서염순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그렇다면 서염순의 작품이 어떻게 최우형의 작품으로 『죽하집』에 수록되게 된 것일까? 현재 서염순의 문집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죽하집』의 서문과 발행기를 통해 몇 가지 정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죽하집』은 원본이 아니며 한권으로 합편된 복사본이다. 『죽하집』 소재 「竹下公略譜」에는 「임자연행별곡」이 최우형이 1852년의 연행에서 지은 것이며, 유품으로 文科及第試卷과 教旨, 影幀, 詩文竹下題號와 燕行別曲이 남겨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後學 靑松 沈彦模의 序와 「竹下公略譜」의 기록을 통해 최우형의 유고가 이미 상당부분 일실되었으며,²⁷⁾ 이 略譜 또한 전란 중 燒失되어 대강을 기록한 것²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죽하집』 마지막에 있는 후손 崔柄權의 發行記를 통해 『죽하집』은 본래 8권이며, 庚午년에 4권으로 합편되었다가, 戊辰년에 上·下卷으로 재편되었으며, 辛未년에 한권으로 합편하였고, 이때 서문과 발문, 연보와 연행별곡을 추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²⁹⁾ 즉 현재 전하는 『죽하집』이 辛未(1991)년 새롭게 간행된 것이며, 그 이전에는 『임자연행별곡』이 그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임자연행별곡」은 서염순과 함께 1852년 임자 연행을 다녀왔던 최우형이 별도로 소장하다가 후손에 의해 뒤늦게 정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서염순의 작품이 최우형의 작품으로 잘못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어떻게 최우형이 소장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우형의 연행시 14수 가운데 서염순의 시를 차운한 것이 3수,³⁰⁾ 서염순의 시에 화답한 것이 1수³¹⁾가 있는데, 이를 통해 서염순과 최우형이 단순히 연행을 함께 다녀온 것 뿐 아니라 시문을 주고받던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임자연행별곡」은 석범 서염순의 작품이라는 것을 비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작자를 도곡 이의현이라고 추정한 선행 연구와 죽하 최우형의 작품으로 소개한 해제,³²⁾ 그리고 각종 인물정보에서 「임자연행별곡」의 작자는 서염순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임자연행별곡」의 작자를 서염순으로 정정할 경우 발생하는 가장 큰 변화는 임자연행별곡」이 창작된 시기이다. 그동안은 ‘18세기 연행가사 작품이 전무한 상황에서 「임자연행별곡」을 통해 통시적 구도의 보완은 물론 연행가사의 변모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자료적 가치를 부여했다. 또 ‘국문으로 창작된 이의현의 가사 작품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의 문예관 및 연행 체험과 관련하여 주목해 볼 만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 「임자연행별곡」은 19세기 서염순의 작품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임자연행별곡」을 도곡 이의현의 18세기 작품이라는 전제에서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했던 선행 연구 내용은 상당 부분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6) 『新增東國輿地勝覽』 43卷 黃海道 江陰縣. 금교역은 고을 서남쪽 30리에 있는데, 본도에 속한 역이 10곳인데, 興義·金巖·寶山·安城·龍泉·劍水·洞仙·所串·敬天·丹林이다.

27) 沈彦模 序, 『竹下集』. 先生歿後于今百餘年祀間, 國統漸喪幾經乘闕, 其遺稿之存者十不存一, 而今所傳者編帙之太少可恨也.

28) 「竹下公略譜」, 『竹下集』. 竹下公行狀文獻, 庚寅南業戰亂燒失, 是略記大綱.

29) 原竹下集, 筆寫八卷, 庚午合編四卷, 戊辰再編上下二卷, 辛未全合編一卷, 序文跋文年譜燕行別曲追補也.

30) 「燕行錄」, 『竹下集』, <統軍亭次徐上使石帆-念淳-韻>, <四方臺次上使韻>, <又次上使韻>

31) 「燕行錄」, 『竹下集』, <和上使韻>

32) 또한 『연행록해제1』의 「연행별곡과 연행시」 해제에서 서염순과 조충식의 생몰년에 오류가 발견된다. 즉 각각 서염순(1820~?), 조충식(1844~?)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서염순(1800~?), 조충식(1784~?)로 수정되어야 한다.

4. 맺음말-19세기 연행가사의 지형도에 관하여

지금까지 도곡 이의현의 18세기 작품으로 밝혀진 「임자연행별곡」을 작자와 창작시기의 문제를 재검증하여, 작자를 석범 서염순으로, 창작시기를 19세기로 확정하였다. 「임자연행별곡」은 한 차례 해제가 이루어진 후에 또 다른 연구를 통해 작자가 잘못 추정되어 알려진 사례이며, 본고에서 선행의 연구를 검토하고 작자를 새롭게 고증한 것이다. 그런데 「임자연행별곡」의 작자를 새롭게 고증하는 것은 단순히 작자를 분명히 밝히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한 세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19세기 연행가사는 물론 조선 후기 연행가사의 지형과 흐름까지도 재고·보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인 연구의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조선 후기 연행가사는 南龍翼의 「壯遊歌」(1666), 柳命天의 「燕行別曲」(1694), 朴權의 「西征別曲」(1866), 金老商의 「戊子西行錄」(1828), 洪淳學의 「丙寅燕行歌」(1866), 柳寅睦의 「北行歌」(1866) 등 모두 6편이다. 그런데 선행의 연구에서 「임자연행별곡」의 창작시기가 18세기로 추정되면서, 기존의 연행가사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즉 지금까지 17세기 작품 3편과 19세기 작품 3편으로 연행가사의 시기적 특성을 연구해 왔는데, 여기에 18세기 작품이 새롭게 편입됨으로써 연행가사의 지형이 더욱 풍부해 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임자연행별곡」은 17세기의 작품들이 갖고 있는 단형 형식의 특징을 보이면서도, 19세기 작품들이 갖고 있는 완결성, 연경에서의 노정과 돌아올 때의 노정이 기록되었다는 특징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17세기와 19세기 작품들의 특징을 골고루 내포하며, 시기에 따른 작품간의 간극을 메우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는 19세기 작품인 「임자연행별곡」을 18세기 작품으로 추정한 선행 연구의 결정적인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임자연행별곡」은 어떤 특징이 있고, 이 작품을 19세기 연행가사의 흐름에 위치시켰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일까?

19세기 연행가사가 17세기 연행가사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서사화와 장편화가 이루어지고, 작품 속에서 회귀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시작³³⁾했다는 점이다. 또 ‘연경’을 다른 여정보다 비중 있게 서술³⁴⁾하기도 했다. 주지하다시피 연행가사는 서사적 이야기꺼리를 담아내며 장편화 되기 시작했다.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기행 가사가 장편화 되고 서사적 성격이 농후해진 것은 가사의 복합 장르적 요소들 가운데 서사성의 극대화나 묘사와 전달의 효율성이라는 현실적 필요성³⁵⁾ 때문이었다.

그런데 서염순의 「임자연행별곡」은 이러한 19세기 연행가사의 특징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17세기 연행가사의 특징에 닿아있기도 하는 등 19세기 연행가사와는 또 다른 면모를 보인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작품간의 분량 차이이다. 예컨대, 19세기의 연행가사 「무자서행록」, 「병인연행가」, 「북행가」가 각각 2000~3000구를 넘는 장편의 가사라면, 「임자연행별곡」은 같은 19세기의 작품이지만 300여 구에 불과한 단편 형식의 가사이다. 이는 오히려 17세기 가사 작품들이 갖는 성격이기도 하다. 즉 17세기 가사들이 3·4음보의 짧은 문장으로 문학적 표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면, 19세기 가사들은 3·4음보의 형식이라도 전문한 것과 그에 대한 감회를 길게 열거하고 나열함으로써 분

33) 임기중, 앞의 책, 328면.

34) 홍진영, 앞의 논문, 12면.

35) 조규익, 앞의 책, 203~204면.

량이 길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임자연행별곡」이 단편 형식을 띠는 점에서는 17세기 작품들의 경향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구성과 내용면에서는 19세기 연행가사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성격을 보인다. 다시 말해 17세기 연행가사 작품들은 연경에 도착한 이후의 노정이 없는데, 19세기의 작품들은 연경에 도착한 이후의 일을 비중 있게 서술하며, 돌아오는 회귀의 과정도 서술하게 된다. 서염순의 「임자연행별곡」에는 연경에 도착한 후의 견문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돌아오는 노정도 간략하지만 생동감 있게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임자연행별곡」은 다소 획일적으로 재단되어 온 17·19세기 연행가사 작품들의 특징이 재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소개된 조선 후기 연행가사는 총 7편이라는 소략한 편수이지만, 17세기와 19세기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임자연행별곡」이 19세기의 작품으로 고증됨으로써, 조선 후기에 다양한 형태의 연행가사가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임자연행별곡」을 19세기 서염순의 작품으로 밝힌 본고의 논의를 바탕으로 작품의 구체적인 분석은 물론 작품의 특질, 세계관이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17세기 연행가사의 경향과 함께 19세기 연행가사의 면모를 새롭게 규명하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竹下集』(국립도서관소장본)

『가사소리』(한국가사문학 국가지식 DB <http://www.gasa.go.kr>)

『英祖實錄』

『哲宗實錄』

『憲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大丘徐氏世譜』(大丘徐氏世譜編纂委員會, 2003)

한중연,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임기중, 『연행가사연구』, 아세아문화사, 2003(2001), 21~119면.

_____, 『(증보판)연행록연구』, 일지사, 2006, 9~120면.

임형택, 『옛 노래, 옛 사람들의 내면 풍경』, 소명, 2005, 9~44면.

유정선, 『18·19세기 기행가사 연구』, 역락, 2007.

정기철, 『한국기행가사의 새로운 조명』, 역락, 2001, 13~42면.

조규익, 『국문사행록의 미학』, 역락, 2004, 243~281면.

- 김용철, 「기행가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가사문학 연구』, 태학사, 1996, 66~81면.
- 김유경, 「19세기 연행문학에 나타난 중국 체험의 의미」, 『열상고전연구』 제21집, 열상고전연구회, 2005, 33~34면.
- 김윤희, 「사행가사 <임자연행별곡>의 창작 맥락과 문학적 특질」, 『고시가연구』 제25집, 한국고시가학회, 2010, 73~105면.
- _____, 「조선후기 사행가사의 세계 인식과 문학적 특질」, 고려대 박사논문, 2010.
- 이지양 해제, 「연행별곡과 연행시」, 임기중 엮음, 『연행록해제1』, 유성문화사, 2003, 829~840면.
- 임기중, 「기행문학사의 신기원, 서행록」, 『문예중앙』 1978 가을호, 1978.10.
- _____, 「연행가사의 연구」, 『한국문학연구』 제10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87, 45~46면.
- _____, 「연행록 세계인 인식 담론에서 가치와 역가치」, 『국학연구론총』 제9집, 태민국학연구원, 2012, 13~14면.
- 한영규, 「19세기 한중 문인 교류의 새로운 양상」, 『인문과학』 제45집,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127면.
- 홍진영, 「19세기 연행가사의 성격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10.

Study on re-consideration of 'Imja Yeonhangbyeolgok's
author and year of written

Kwak, Mi-Ra

This study is to correct the misrepresented author of Imja Yeonhangbyeolgok(壬子燕行別曲), to Seokbeom SEO, Yeom Soon(徐念淳, 1800-?) in 19th century, introducing specific literal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those caused mis-judging the author as Dogok LEE, Eui Hyeon(李宜顯, 1699-1745) in 18th century, by re-considering Yeonhangbyeolgok's year of written.

When Imja Yeonhangbyeolgok in 『Gasasori』 was introduced first in an academy, Dogok LEE, Eui Hyeon had been judged as its author and it had great value as a reference under the circumstance that Yeonhang Gasa had not yet been revealed. However, the results had caused by inaccurate understanding on its different versions. 'Imja Yeonhangbyeolgok' is the same with 'Yeonhangbyeolgok' written by CHOI, Woo Hyeong (1805-1878) which was introduced through 'Yeonhangrokhaeje' in 2003 and it was attached to 『Jukhajib(竹下集)』, his collection. In this study, 'Imja Yeonhangbyeolgok' in 『Jukhajib』 and 'Imja Yeonhangbyeolgok' in 『Gasasori(가사소리)』 were compared each other and analyzed in detail to verify exact author and the year of the book that was written.

At the end of the analysis, in the book it was revealed that 1852 was the Imja(壬子). Through three evidences; first point that CHOI, Woo Hyeong went to Saeunsa as Seojanggwan, second, "Do Seonsaeng" meant governor, not Dogok LEE, Eui Hyeon and third, it described HONG, Gyeong Rae's war in 1811 in the book, it was figured out that the author was not Dogok, LEE, Eui Hyeon. In addition, the author of 'Imja Yeonhangbyeolgok' seemed to be determined as CHOI, Woo Hyeong because this was attached to 『Jukhajib』 written by CHOI, Woo Hyeong, indicated on CHOI, Woo Hyeong's profile and preface of 『Jukhajib』. However, one possibility came up that it would be written by Jeongsa SEO, Yeom Soon who was dispatched with CHOI, Woo Hyeong as an ambassador because there was a signature called "Sheogwan Sheo, Ryeom Syun" on the left bottom of the title, 'Imja Yeonhangbyeolgok' in 『Gasasori』.

By comparison with profiles for 2 persons based on "contribution for 4 kings(歷事四朝)" and "promotion to higher position such as Panseo(致位八座)", it was confirmed that SEO, Yeom Soon was the person who fit to contents and profiles in the book. After a careful review of their position at the time they were dispatched. SEO, Yeom Soon was a governor of Hwanghae-do in 1842. It was 10 years before she was sent as an ambassador in 1852. With this proof, it was possible to understand the paragraph "Do seonsaeng 10 years ago".

Through the study above, it was cleared that 'Imja Yeonhangbyeolgok' was written by SEO, Yeom Soon. For this reason, previous study judging that this book was written by Dogok LEE, Eui Hyeon, bibliographic introduction that introduced CHOI, Woo Hyeong as the author, and other

various biographic intelligences should be corrected.

When the author of 『Imja Yeonhangbyeolgok』 is corrected, the expected main change would be the time book was written. So far, there are only 7 Yeonhang Gasas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As 『Imja Yeonhangbyeolgok』 having characteristics in 17th century and 19th century was ascertained as the work made in 19th century, the possibilities that a variety forms of Yeonhang Gasa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would be written were figured out. In other words, 『Imja Yeonhangbyeolgok』 plainly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discuss about uniformly judged Yeonhang Gasa's characteristics appeared in 17th and 19th century.

As a result, those works such as detailed analysis, characteristics and outlook shall be re-evaluated based on the study above illustrating 『Imja Yeonahngbyeolgok』 was written by SEO, Yeom Soon in 19th century. Meanwhile, there shall be needs of keeping responsibilities that Yeonhang Gasa's aspect in 19th century including tendency in 17th century constantly identified, and prospect for the study shall be extended.

Key words: Yeonhangbyeolgok, Imja Yeonhangbyeolgok, SEO, Yeom Soon, CHOI, Woo Hyeong, LEE, Eui Hyeon, Yeonhang Gasa in 19 century, Jukhajib and Gasasori